
5 분 자 유 발 언

- 고성군 역사문화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창의탑 이전 방안 -



고성군의회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의원입니다.

올해로 106주년을 맞이한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고성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19년 3월 20일 배둔장터에서

700여 명이 넘는 군민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의 억압에 맞서 목숨을 건

항거를 벌였습니다.

매년 많은 군민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1운동 창의탑이 자리 잡은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그 숭고한 뜻을 제대로 기리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첫째, 현재 창의탑이 위치한 지역은
당항포 관광지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와 인접하여 행사 진행 시
필연적으로 도로의 일부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항포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크고 작은 불편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혼잡과 통행 제한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행사장 주변에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참석자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회화 3.1운동 창의탑 보존위원회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창의탑 이전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소방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로의
창의탑 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로
창의탑을 이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소방서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의 119안전센터 부지는
넓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이 부지는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 주민들에게도 친숙하며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현재 경상남도의 소유로 되어 있어
고성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성군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 행정에서는 경상남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의탑 이전에 대한
신속한 실현 가능성 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의미를 보다 더 잘 기릴 수 있는
장소로의 창의탑 이전을 통해
지역 주민과 참석자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